러시아 밀 12월에 작황 피해

(2013.1.25. 로이터통신)

원제: Jan good for Russia crops after some damage in Dec-forecaster - RTRS

러시아 국립 농업기후전망소장인 Anna Strashnaya가 1월 25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12월 러시아 밀 재배지역에 된서리가 내려 피해가 있었으나 1월의 기후는 순조로웠다고 한다. 그는 아직 겨울 동안 입은 피해를 전망하기에는 이른 시기이나 12월 동안 러시아의 밀 주산지인 볼가(Volga)구역, 남구, 북코카서스(North Caucasus: 흑해의 동쪽지역) 연방구역에 악천후가 있었다고 말했다. 그러나 남쪽 지역에는 작황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. 러시아 국립 기상청은 표본을 채취하여 작황분석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.